

2013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를 마치고

■ 일 시 : 2013년 4월 11일(목)~12일(금)

■ 장 소 : 대전컨벤션센터(대전 DCC)

2013년 한국고분자학회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가 4월 11~12일, 이틀에 걸쳐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춘계학회는 American Chemical Society(ACS) 학회와 겹침에도 불구하고 2,300여 명의 인원이 등록한 가운데, 논문 발표 편수도 초청강연 111편, 구두발표 69편, 포스터발표 1,011편 등 총 1,191편에 이르렀습니다. 매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한국고분자학회의 모습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는 LG화학 기술연구원 유진영 원장께서 “고분자 산업의 새로운 르네상스”란 제목으로 기조강연을 하였고, 2012년 처음으로 제정된 도레이고분자상 수상기념 강연을 이문호 교수(포항공과대학교)께서 “High Performance Polyimide Dielectrics and Semiconductors: Low- κ dielectrics, LC-alignments and Electrical Memories”라는 제목으로 하셨습니다. 또한, 일본고분자학회 부회장인 Nobuo Kimizuka 교수와 Young Scientist로 Keita Kuroiwa, Tsuyoshi Michinobu 교수께서 참가하여 초청강연을 하였습니다.

11일 오전에 열린 총회에서 삼성고분자학술상을 권익찬 박사(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상을 김현철 박사(LG화학 기술연구원), 신진학술상을 이승우 교수(영남대학교), 박문정 교수(포항공과대학교)께서 수상하셨습니다. 또, 2명의 박사 우수학위 논문상과 2명의 석사 우수학위논문상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올해의 고분자 연구논문발표회 학술프로그램은 첫째 날 기조강연, 기능성고분자, 고분자 이론 및 시뮬레이션, 분자전자 부문위원회(I), 고분자 표면 기술을 이용한 세포 및 조직 기능제어, 고분자가공/복합재료, 신진연구자 특별 심포지움, 차세대 메모리 소자용 고분자 나노 기술, 대학원생 구두발표(영어) 및 대학원생 구두발표(I)의 9개의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둘째 날 고분자구조 및 물성, 고분자 합성, 분자전자 부문위원회(II), 의료용고분자 부문위원회, Korea-Japan Joint Symposium: Frontier Molecular Assembly and Liquid Crystal Technology, DNA 기반의 광전자소재 및 소자 연구, 박리그래핀 제조 및 소자 응용기술, 대학원생 구두발표(II)의 8개로 총 13개 주제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Korea-Japan Joint Symposium을 위하여 일본에서 Junji Watanabe, Haruyoshi Takatsu, Takahashi Kato, Hirotugu Kikuchi 박사께서 참석하여 초청강연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양일간에 걸쳐 13개의 회장에서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발표와 심층 토론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어느 국제학술대회에도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학술논문발표로 한국고분자학회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각 학술회장의 크기에 따라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에 따라 몇몇 학술회장은 서 있을 자리조차 없을 정도로 공간이 협소했으며, 어떤 회장은 학술회장의 크기에 비하여 청중들의 수가 너무 적어서 빈 공간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다음 학술회의부터는 주제에 따른 공간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0년 춘계학회부터 시도된 대학원생 구두발표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여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학생들의 열기로 잘 진행되어 미래의 주역인 대학원생들에게 무척 고무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고 판단됩니다.

포스터 연구논문 발표에는 11일 오전과 12일 오전 및 오후, 총 3회에 걸쳐 1,011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예년과 마찬가지로 이번 춘계학회에서도 포스터 연구논문 발표 논문들 중에서 학술위원회에 의해 사전 및 현장심사를 거쳐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여 우수논문발표상을 시상하였습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께서 연구창의성, 연구내용 및 발표력 등의 엄격한 평가기준에 근거해 총 38편의 응모 논문 중 8편의 논문을 우수논문발표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 포스터 연구논문 발표 수에 비해 우수논문발표상에 응모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 역대로 우수논문발표상을 수상하는 학교 및 지도교수들의 수가 너무 제한적인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첫째 날 오전은 사전 등록대 및 현장 등록대에 많은 참여자들이 등록을 위하여 기다리는 이유로 포스터 연구논문 발표에 다수의 포스터가 발표되지 않았거나 늦게 부착되어진 점은 학회차원에서 등록대의 증가 등의 방법적인 문제와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야한다고 판단됩니다.

34개의 기기전시 부스 및 13개의 기업체 홍보 부스 등 총 49개의 부스가 이번 춘계 학회에 설치·운영되었으며, 전시업체의 요구를 최대한 고려하여 최상의 전시부스를 참여업체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각 전시부스를 방문하여 기기전시 및 기업체 홍보에 큰 관심을 보여 주셨고, 이에 따른 이벤트로 학회 마지막 날인 12일 마지막 행사로 약 20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경품 추첨이 있었습니다. 응모한 회원 중 29명의 회원님들이 경품을 수령하는 즐거움을 만끽했고, 이 유쾌한 행사를 끝으로 이번 학회를 마무리하게 되어 본 학술대회는 단지 경직된 학술대회가 아닌 모든 회원의 참여로 경쾌하고 즐겁게 진행되는 학술축제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 회장님들께서 직접 1등상에 대한 추첨 및 시상을 하시며 학생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시는 모습은 향후 고분자학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본 학회의 기기전시 준비 및 운영에 대하여 대부분의 기기전시 업체들이 만족을 표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전시부스 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앞으로도 많은 업체들이 본 학회 학술대회의 기기전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학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애써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훌륭한 학술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고분자학회 학술위원회 위원님들, 프로그램을 구성해 주신 organizer 분들과 성공적인 세션 진행을 위하여 애써 주신 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시부스에 참가해 주신 여러 기업 및 기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두성 회장님을 비롯한 학회 임원 여러분과, 학술대회의 모든 준비와 진행을 총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던 윤호규 전무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학술대회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세심한 준비와 빈틈없는 진행을 담당해 주신 운영이사 여러분과 학회 사무국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학회 등록과 학회장 운영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준 학생 staff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학술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은 무엇보다도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표해 주신 발표자님들과 애착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학회 회원님들의 덕분이라 생각하며 고분자학회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이사 이승우(영남대학교)〉

